

김민석·정청래 당권주자 초접전… 민주당 전대 ‘안갯속’

지역별 순회경선 1위 자리 초박빙
권리당원 많은 호남·수도권 ‘승부처’
현재 집계, 대의원·권리당원만 반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순회경선이 중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지역별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누적득표율에서 앞지락뒤지락 순위가 바뀌며 ‘초박빙’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과반을 확보하면 당 대표에 바로 당선되기 때문에,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지지층 결집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호남·수도권 경선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앞지락뒤지락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8일)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까지 치른 결과,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차는 0.86%포인트(P)차다. 충청권역 순회경선(8월1일)에선 김 후보가 정 후보를 0.44%포인트 차로 꺾고 1위로 올라서더니, 다음 날(2일) 부·울·경 순회경선에선 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율을 얻어 김 후보와 격차를 2.8%포인트 차로 벌렸다.

전당대회 첫 수도권 경선이 벌어졌던 지난 8일 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 정 후보를 누적 총 득표수에서 앞서면서 당 대표 선거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초



송영길(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빙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집계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만 집계됐을 뿐, 대구·경북·경남(5%) 기중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 여론조사(30%)도 반영되지 않았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서미화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선출직 최고위원의 남은 한자리를 놓고 ‘친청계’ 이성운 후보와 ‘친명계’ 김용 후보가 경쟁하는 모양새다.

권리당원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권(15일), 서울·경기(16일) 순회경선에서 선거 유곽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은 신경전을 벌이며 당시에 호소했다. 민주당 152만 권리당원 중 호남에 50만명, 경기·서울에 58만명 등 두 권역에 전체의 71%가 밀집해 있어 중요도가 높다.

◆9일 연설회에서도 ‘명청대전’ 신경전 계속

김민석 후보는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강릉 국회의원 재선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는 2년 후 총선 수도권 승리를 상징할 것이고, 강릉의 승리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협지의 승리를 상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후

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서울 강릉 보선에서 이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하루빨리 통합하고 범민주 진보 연합 단일대오로 1대1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 반명(반이재명), 반명을 외치면서 분열, 분열을 외치면서 신천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라져 있다”며 김 후보 측을 나무랐

고 비난받고 있다”며 “심지어 어떤 당원은 제가 입장할 때 ‘정청래가 윤석열’이라며 저를 욕한다. 저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 때 이재명(당시) 대표 바로 옆자리 짝궁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웠는데 정청래는 반명이 라고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반명(反이재명)’ 프레임에 반박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에 공격을 펼치며 김 후보와 함께 협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강원도가 승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라며 “일부 사람들은 강원도의 승리를 정청래 당 대표의 승리로 선전하지만 맞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를 띄워줬지만 당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패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윤여계인 세력으로 척결시켜야 할 정치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 어쩌면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대통령의 공식 언급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잘 싸우고 이겼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당 대표를) 또 하겠다’는 식의 마인드로 민주당을 끌고 가면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고 했다.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장동혁, 국힘 쇄신안 꺼내 ‘사퇴론’ 정면돌파 여야, 부동산·증시 해법 경쟁… 민생 정조준

오는 15일 광복절 전후 쇄신안 발표 ‘당원 중심·잘 싸우는 정당’ 내세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년을 앞두고 오는 15일(광복절) 전후로 쇄신안을 발표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퇴 여론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중심 정당’을 앞세워 당원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대어(對與) 공세에도 고삐를 쥔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당내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비전을 담은 쇄신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쇄신안은 다가오는 광복절 전후에 발표할 계획인데, 정확한 발표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번 쇄신안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운영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폭넓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잘 싸우는 정당’ 역시 장 대표가 내세우는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출작공작자 평가 혁신 태

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당이라면 당내 문제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두고 “이번 TF에서는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능력을 국민, 당 그리고 당원을 위해 쏟아붓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이번 쇄신안 발표는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장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과 시민 2만2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황희 ‘버스 하우스’ 제안에 여야 못매

민주당 지도부 “실현 가능성 낮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 주거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이 역풍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우물”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지도부마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진화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청년 주거 대책은 여야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의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며,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 주거로 활용하는 ‘버스 하우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황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8일) 자신의 SNS에 “이번 ‘폐버스 하우스’ 논란은 집권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와 부동산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버려진 버스가 아닌 안정된 주거 공간”이라고 적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여름과 겨울이 극렬하게 달라서 유럽과 달리 이러한 정책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청년이 처해 있는 주택 관련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민주, 주택시장안정화TF 확대 개편 국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등 비판

여야가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제·증시·부동산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다.

부동산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도권 대출 규제로 시장 안정을 꾀했지만,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출범 초기로 볼 수 있는 2025~2026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11%로 역대 정부 초기와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은 20·30 세대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예정이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테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해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대 개편하는 TF엔 한 정책위의장, 박상혁 정책위사회수석부위원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부동산 관련 상임위 간사 등 현역 의원 14명이 참여한다. TF는 이번주 후반에 첫 회의를 열고 논의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공급을 해보자”며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매입 임대 확대, 모듈러 주택·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주택 예산 반영 등이 실현되면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직접 당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7일 제8차 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집값이 오른다면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며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집값이 잡히겠다.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지난 8일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의 현재 세제개편안은 더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반납을 원하는 세제개편은 화수해 가시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다시 들여다 본다. 이 두 개편안은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어서 보안을 요청한 만큼 민주당도 의원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ISA 개편안은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기업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 순위를 관리할 가능성이 커져 주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